2024 동서악회·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세미나

2024.11.19(화) 17:00~19: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한국과 불가리아 창작음악에 나타나는 전통성과 현대성

주최·주관: 동서악회 동서악회

후원: (사)음악미학연구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소피아뮤직위크재단 Sofia Music Weeks

하나아트네트워크 Hana Art Network

불가리아 국립 플로브디프 예술원 Academy of Music, Dance and Fine Arts - Plovdiv

문의: ewmusickorea@gmail.com

동서악회 인사말

늦가을의 향기가 짙어지는 이 저녁, 여러분들을 모시고 2024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서악회는 2022년부터 불가리아를 대표하는 음악 페스티벌 Sofia Music Weeks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한국과 불가리아 간의 다양한 공동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양국 간 작곡가·연주가·무용가 등이 상호교차 콜라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함으로써 국제적인 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초청 세미나와 포럼 등에 참여하며 학문적 측면에서도 예술적 교류를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2024 교류 세미나는 작년 이건용 작곡가가 불가리아에서 "음악의 섞임, 문화의 섞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세미나의 후속 작업으로서, 소피아 국립음악아카데미의 음악학 교수 에밀리아 콜라로바가 "20세기 불가리아 창작음악에서 나타나는 전통성과 현대성"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불가리아 음악을 이루고 있는 음악 문화의 섞임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창작 음악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음악미학연구회와 함께함으로써 창작 음악뿐 아니라 양국의 음악학과 비평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이러한 교류의 시간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착되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소피아뮤직위크 몸칠 게오르기에프 대표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불가리아한국대사관, 하나아트네트워트, (사)음악미학연구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명지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교수
동서악회 회장
이 복 남

프로그램

2024 동서악회·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세미나

한국과 불가리아 창작음악에 나타나는 전통성과 현대성

2024.11.19(화) 17:00~19: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주최·주관: 동서악회

좌장: 오 희 숙(사단법인 음악미학연구회 대표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17:00-17:10	개회 및 인사말	이 복 남(동서악회 회장)
17:10-18:10	[발표 1]	TRADITIONS AND MODERNITY IN THE BULGARIAN COMPOSER'S CREATIVITY Emilia Kolarova (Prof. National Academy of Music in Sofia as a master of musicology)
18:10-18:30	[발표 2]	최근 발견되는 한국 창작음악과 전통의 연결 경향에 관한 소고 이 민 희 (서울대학교 음악학 박사, 충남대 강사)
18:30-19..00	[질의 및 토론]	류 경 선(고려대학교 학부대학 음악전임 교수) 장 유 라(중앙대 철학 박사, 서울대 박사 수료)

PROGRAM NOTE

TRADITIONS AND MODERNITY IN THE BULGARIAN COMPOSER'S CREATIVITY

Emilia Kolarova

(Prof. National Academy of Music in Sofia as a master of musicology)

■

최근 발견되는 한국 창작음악과 전통의 연결 경향에 관한 소고

이 민 희

(서울대학교 음악학 박사, 충남대 강사)

PROGRAM NOTE

"TRADITIONS AND MODERNITY IN THE BULGARIAN COMPOSER'S CREATIVITY"

Emilia Kolarova

PhD. Prof. National Academy of Music in Sofia as a master of musicology

The Bulgarian professional musical creativity in the 20th century provides rich and varied empirical material, which confirms the importance of the dynamic and mobile connectio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as a completely new perspective in revealing the problematic of the national-universal relationship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Bulgarian musical culture.

The main thesis of the seminar is the idea to rationalize the national as the intersection of the various contexts of "own" and "different", as a constructive dialogue between identities rather than as a static opposition of differing national traditions. Namely through dialogue, Bulgarian music seeks and marks its place in the cultural continent of Europe, and at the same time in the world.

When the individual facts of local music history are positioned into different sectors of the world "cultural network", we witness its multitude of heterogeneous perspectives reveal within them landmarks of national characteristic and evidences of pluralistic modernity, all of them expressed through the creative individuality of Bulgarian composers.

In this regard, the seminar presents relevant examples from Bulgarian musical creativity that illustrate this dialogical process. The works belong to composers of different generations, with different aesthetics and style. But all of them convincingly reveal the Bulgarian identity and European frame of mind of the authors.

In the interpretation of works and events from the Bulgarian musical history, the triad "text – context – subtext" introduced in the seminar plays an important role. Analyzed in the complex socio–cultural context of the time in general and of the unique creativity of individual authors in particular, the musical opuses subject to the study (the text) reveal their true and often hidden ambivalent semantics and real inner content (the subtext).

“최근 발견되는 한국 창작음악과 전통의 연결 경향에 관한 소고”

이 민 희
서울대학교 음악학 박사, 충남대 강사

국내 창작음악계에서 ‘전통’ 담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는 1980년대다. 서양의 최신 작곡기법을 국내의 작곡가들이 능숙하기 소화하기 시작한 이후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와 일치한다. 많은 작곡가들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고 일부가 여전히 서구 스타일의 현대음악을 고수하는 동안 상당수의 작곡가들은 한국 전통의 리듬과 선율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음악을 선보였다. 민족적인 요소에 현대적인 음악 기법을 결합해 곡을 썼던 나운영(1922-1993)에서부터, 제3세대 작곡동인을 결성하고 전통과 동시대 현대음악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던 이건용(1947-)에 이르기까지, 그즈음의 음악들에는 5음음계, 새야화현, 전통장단에 기반한 리듬 등이 다수 발견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과 ‘현대’의 결합을 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이 때는 1980년대 생이 작곡 활동을 시작한 시기다. 우선 전통적인 요소를 전면에 드러내고 곡을 썼던 작곡가들은 ‘(창작)국악 작곡’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정착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불리는 ‘현대음악 작곡’과는 구분된다. 또한 작품 안에 새야화현이나 오음음계 등을 담는 행위 자체가 ‘지난 세대의 작법’을 연상시키게 되었다. 과거의 전통성 담론과 그 방편으로 제시된 특정 작곡기법이 ‘세대성’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1980년대생 부터는 직·간접적으로 전통음악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으며, 국제화된 환경에서 작곡공부를 하고 이전 세대에 비해 국가정체성이 약하다. 이런 변화 아래에서, 2010년대 이후 젊은 작곡가들이 ‘전통’과 ‘현대’를 결합시키는 방식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이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경향의 일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 시절 들었던 특정한 동요 등을 작품 안에 인용함으로써 한국적인 무언가를 표출한다. 이런 노래들은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을 표상하게 되며, 일부는 토속적인 느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과거 작곡가들이 전통음악의 특정 선율이나 리듬 등 음악기법적인 요소만을 발췌해 새로운 음악의 원천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 최근의 몇몇 작곡가들은 퍼포먼스라는 종합예술 형태로 존재하는 ‘전통 그 자체’를 새로운 음악 안에 구현한다.

셋째, 한국의 전통을 서구의 전통 혹은 다른 시대의 음악과 병렬로 배치한다. 이 경우 한국 전통에 대한 시선은 외부인의 것과 흡사해진다. 이런 음악 안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음악적 양상이나 속성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악과 연결고리를 갖는 것으로 인지된다. 넷째, 전통적인 요소를 음악 안에 포함하되 ‘의식’이나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지극히 ‘음향’으로 다루며, 소리 자체에 대한 탐색이 훨씬 진보적이다. 이를테면 전자음악 분야에서 국악기를 활용한 라이브 일렉트로닉스 음악을 선보일 경우, 전통 선율이 가진 시김새나 독특한 선율표현 방식을 고스란히 증폭시켜 ‘음향 그 자체’의 측면에서 치열하게 탐색한다.

위와 같은 경향은 ‘전통’이라는 테마가 여전히 동시대의 젊은 현대음악 작곡가의 작법 안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전통’토픽이 옛 세대의 산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세대의 작곡가들 사이에서 독특한 음악을 구축하는 중요한 아이디어로 전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발표자 및 토론자 약력

EMILIA KOLAROVA

Prof. Emilia Kolarova PhD graduated from the Academy of Music in Sofia as a master of musicology. In 1985 she defended her doctoral thesis on "Interactions and parallels in the development of Bulgarian and Russian musical cultures (1878-1918)" at the Moscow State Conservatory "PI Tchaikovsky".

She has been a professor of music history at the Department of "History of Music and Ethnomusicology" at the National Academy of Music "Prof. P. Vladigerov" since 1985 and conducts lecture courses in all faculties. She is the author of the master's programs "History of the Operetta and the Musical" and "Typology and Practice of the Musical Genre", as well as the doctoral program "Art Tendencies and Creative Interpretations in the Music of the 20th Century". She is the scientific supervisor of more than 65 bachelor's and master's theses of students from Bulgaria, Greece and Cyprus, as well as doctoral theses in Bulgaria, Spain, France, Spain, China and Kazakhstan. At NMA she is the head of a number of projects related to scientific research and creative activity. In the period 2016-2020 she is the Vice Dean of the Theoretical-composing and conducting faculty at the National Academy of Music "Prof. P. Vladigerov".

E. Kolarova has had a great number of published papers in the field of Bulgarian musical culture, comparative musicology as well as on the issues of musical Balkan studi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national and universal, global and local, tradition and contemporary in Bulgarian musical works. She holds a variety of seminars and participates in musicology forums in Luxembourg, Japan, Russia, USA, Kazakhstan, Australia, Russia, Czech Republic, Slovenia, Romania, Spain. She is a member of Editorial Boards in foreign editions.

She is the author of the Bulgarian Composers and Conductors Catalogue" (1999); the bilingual Bulgarian Music Panorama" CD (2000); of the scientific research Toward the problem of the development of choral performance in Bulgaria (history, features, perspectives)" (2000), Aspects of the Concept of the National in Bulgarian Musical Works in the 20th Century in the Context of Modernity" (2004), "The dialogue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in the Bulgarian musical creativity of the 20th century" (2013); "Panorama of Bulgarian Music" (2000, in Bulgarian and English); the text comments in the film about Yosif Tsankov "The Caravan of the Song" (Bulgarian National Television, 2001); of the texts in the booklet of the CD with Bulgarian music, ed. Chandos Records, 2021, London).

During the period 2006-2008, E. Kolarova was the scriptwriter of the weekly broadcast "BNT Music" on the Bulgarian National Television and collaborated in a number of other TV and Radio programs, as well as music publishing companies (7 days, Alma Mater, Classic FM Radio; Mega Music, Elm Records).

In 2009 is the premiere of her documentary about the anniversary of the Sofia Philharmonic Orchestra "The National Music Team at 80 years. Rehearsal for a concert", and in 2011 also based on her script - "Time and Music" for the 9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Academy of Music "Prof. Pancho Vladigerov".

E. Kolarova is a member of Zonta International. She is included in the Trud Publishing House Encyclopedia "Who's Who in Bulgaria" (1998).

발표자 및 토론자 약력

이민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논문 “디지털 미니멀 음악(Digital Minimal Music)의 양상과 미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현대음악, 음악극, 오페라, 한국의 현대음악 등이다. 공저로 『한국오페라 1950-2020 1-3』(2023), 『북 치는 소년: 박동욱의 삶과 음악』(2023), 대표 논문으로 “이건용 오페라에서 나타나는 한국어의 음악적 표현에 관한 연구” (2024), “미니멀 음악의 샘플링에 관한 연구” (2024), “독립된 음악창작 카테고리로서의 ‘소극장오페라’에 대한 고찰” (2021), “온·오프라인의 상호작용으로 구축되는 연쇄적 관극 문화에 관한 고찰” (2019), “미니멀리즘 음악의 수렴하고 발산하는 정의들에 관한 고찰” (2017) 등이 있다. 충남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경북대·추계예대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음악미학연구회 이사, 충남대·공주교대 강사이다. 음악평론가로 활동 중이며 비평웹진 멜로스의 대표이다.

류경선

연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B.A.), 동 대학원 석사(M.M.)와 박사학위(D.M.A.)를 취득하였다. 예술성과 독창성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소리에 대한 탐구를 하는 열정과, 동시대를 함께 하는 일반 청중들과 연주자들 모두가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음악에 대해 모색하고 있는 이상을 지닌 현대음악 작곡가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지각과 생각의 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소재들을 음악적 아이디어로 전환하고 있다. (사)한국작곡가협회 이사, 21세기악회 부회장, 창악회 감사, (사)한국여성작곡가회 감사, 공간소리와 동서악회의 연구이사, ISCM, ACL, 운지회, 소리목, 신음악회 등의 다양한 현대음악 창작단체와 협회 회원으로 꾸준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그대에게 보내는 편지’, 2023년 ‘꿈꾸는 심장’을 부제로 개인 작곡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11월말 ‘즐거운 상상’을 부제로 금호아트홀연세에서 작곡발표회를 개최한다. 현재 고려대학교 학부대학 음악 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유라

중앙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예술철학전공) 박사학위를 취득, 음악해석학에 관한 논문을 주로 게재하였다. 국내, 외 다양한 연주활동을 비롯하여 중앙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국립청주과학대학교, 전주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고, 강동대학교 초빙전임교수를 역임하였다. (사)음악미학연구회 총서《그래도 우리는 말해야하지 않는가: 음악의 연주, 분석, 작품의 해석》,《베토벤의 위대한 유산》,《한국창작음악-비평과 해석사이》 시리즈 2~5권의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대학원 음악학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두 번째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동서악회(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소개

동서악회 홈페이지: http://east-westmusic.org/

동서악회는 우리 전통음악을 배우고자 모인 작곡가들과 전문 국악인들이 주축이 되어 2010년 발족되었습니다.

"법고창신(法古創新)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는 기치 아래 작곡가들은 지속적으로 국악 연주회원들에게 우리 악기와 소리를 배우고, 매년 선정한 공연 주제에 관한 연구를 병행하는 등 연주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독창적이고 진정성 있는 작품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한 "우리가락 Project"는 **동서악회**의 대표적 시리즈 공연으로서 우리 전통음악 중 대중에게 친숙하지는 않지만 예술성을 지니며 학술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음악을 발굴하여 공연예술콘텐츠로 제작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통음악에 비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이러한 작업의 가치를 믿고 있기에 신념을 가지고 디디는 우리의 행보가 한국창작음악계에 생기를 불어넣고 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동서악회 회장 **이 복 남**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was established in 2010 by a group of contemporary composers and professional Korean traditional performers to learn our traditional music.

Under the banner of "creating new by learning from history", we have been producing original and authentic works, by learning our traditional instruments and sounds from our traditional musicians, and studying selected topics on music concerts every year.

Starting in 2011, "Our Melody Project" is a representative series performance of the East-West Music, and we are working on discovering music that is not familiar to the public but requires academic research and producing it as a performing arts content.

It may seem somewhat unfamiliar compared to other traditional music, but we believe in the value of this work. Moreover, we are confident that it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revitalizing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s creative music industry.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interest and encouragement.

President of 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Boknam Lee**

동서악회 연혁

2009	05월	동서음악연구회 발족
	12월 04일	동서악회(The Society for East-West Music) 창립총회
	10월 10일	동서악회 제1회 학술포럼: Microtonal Music in America - 아르코정보예술감상실 심포니 (강사: AntonRovner)
2010	10월 07일	동서악회 제3회 학술포럼: Sofia Gubaidulina - 명지대학교 60주년 기념관
2011	01월 20일	동서악회 법인등록
	03월 09일	창단연주회 - 대한민국실내악제전 "우리가락 현대路 가다" - 예술의 전당
	06월 17일	동서악회 제3회 학술포럼: 아프리카의 리듬과 한국의 리듬 비교 - 우리가락교육연구회(강사: 정환직)
	08월 17일	The Vth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We Gather Friends" -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음악원 라흐마니노프홀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초청세미나 -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컨퍼런스홀
	11월 01일	현대국악앙상블 굿모리 제3회 정기연주회 "다매체음악회" - 대구우봉아트홀
2012	09월 20일	동서악회 제2회 정기연주회 - 국악실내악단 "청유"초청 한일교류음악회 - 용인문화재단 마루홀
2013	02월 19일	동서악회 제4회 학술포럼: 오르간음악 - 신촌 성결교회 아천홀
	05월 25일	International Contemporary Music Festival "Present of Orchestral Asia (아시아 관현악의 현재)" - 교토시립예술대학홀
	10월 26일	어린이합창극 "꽁지닷발 주둥이닷발" -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11월 12일	동서악회 제3회 정기연주회 "중국 성해음악학원 초청-한중교류연주회" - 용인문화재단 마루홀
2014	02월 11일	동서악회 제5회 학술포럼: 정가 - 우리가락교육연구회(강사: 이소정)
	07월 03일	중한작곡가음악회 - 중국 광저우 성해음악대학 대강당
	11월 12일	동서악회 제4회 정기연주회 화성두레보존회와 함께 하는 "우리가락 세계路 날다" - 용인여성회관 큰 어울마당
2015	11월 19일	동서악회 제5회 정기연주회 "가락나들이" - 용인시 문화예술원 마루홀
2016	04월 16일	동서악회 제6회 학술포럼: 정가와 판소리 - 우리가락교육연구회(강사: 민수민, 허정임)
	09월 29일	동서악회 제6회 정기연주회 우리가락 Project 여섯 번째 "소릿가락" - 한국문화의집 코우스
2017	02월 06일	동서악회 제7회 학술포럼: 경기12잡가 - 국립국악원 연수동(강사: 강효주)
	09월 19일	동서악회 제7회 정기연주회 현대음악과 춤으로 풀어낸 경기12잡가, "춘향연가" - 용인 포은아트홀
2018	07월 09일	동서악회 제8회 학술포럼: 종묘제례악 보태평 - 국립국악원 연수동, 강사 문 현
	09월 13일	동서악회 제8회 정기연주회, 우리가락 Profect 법고창신(法古創新) 종묘제례악, 현대음악의 프리즘을 통과하다 -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
2019	02월 11일	동서악회 제9회 학술포럼: 종묘제례악 정대업 - 내곡 열린 문화센터강사:김광섭)
	11월 25일	동서악회 제9회 정기연주회, 우리가락 Project 아홉 번째 종묘제례악, 현대음악의 prism을 통과하다 II - 페리지홀
2020	08월 11일	동서악회 제11회 학술포럼: 한국탈춤음악의 이해 I - 예술가의 집(강사: 박인수)
	11월 10일	동서악회 제10회 정기연주회, 우리가락 Project “탈들이 날아와 소리가 되다” - 국립국악원 우면당

동서악회 연혁

2021	08월 09일	동서악회 제11회 학술포럼: 한국탈춤음악의 이해II - 예술가의 집(강사: 박인수)
	12월 26일	동서악회 제11회 정기연주회, 우리가락 Project "탈들이 날아와 소리가 되다" II - 세종S씨어터
2022	06월 13일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세미나: 한국의 전통음악, 현대의 프리즘을 통과하다 - 소피아 국립음악아카데미(강사: 박윤경)
	06월 14일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음악회: 향과 탈춤의 향연(Incense and Mask Dances)" - 불가리아 소피아 필하모닉 실내악홀
	06월 17일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음악회: 한국전통음악의 밤 - Zala Plovdiv
	06월 28일	동서악회 제12회 학술포럼: '고려가요' 사용한 악보에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 정효문화재단 다목적홀(강사: 주재근)
	10월 12일	동서악회 제12회 정기연주회: 우리가락 Project 색다色多른 가요? 현대음악과 고려가요(歌謠)의 만남 - 국립국악원 우면당
	11월 17일	동서악회 & 소피아뮤직위크 국제교류 '불가리아 아르덴짜 듀오 초청 음악회'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2022 국제 교류: 불가리아 아르덴짜 듀오 초청의 밤 - 일신홀
2023	06월 20일	동서악회 작품집 1권(춘향연가), 2권(종묘제례악), 3권(탈들이 날아와 소리가 되다) 출판
	06월 26일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세미나: 음악의 섞임, 문화의 섞임 -소피아국립음악아카데미(강사: 이건용)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음악회: 사랑과 이별의 서사 - 국립소피아음악아카데미 판초 블라디게로프홀(Pancho Vladigeriv Hall)
	06월 28일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음악회: 한국으로의 음악여행 -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역사박물관(Plovdiv Reginal History Museum)
	06월 29일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음악회: 한국으로의 음악여행 -불가리아 루셰 국립예술학(Rousse National School of Arts)
	08월 02일	제13회 학술포럼: 거문고-양재 Gallery K(강사: 이선희)
	10월 05일	동서악회 제13회 정기연주회: 色多른 가요? 현대음악과 고려가요(歌謠)의 만남II-국립국악원 우면당
	11월 04일	동서악회&소피아뮤직위크 국제교류 세미나: 불가리아 현악사중주를 위한 현대음악 -푸르지오홀(강사: 몸칠 게오르기에프, Momchil Georgiev)
		2023 동서악회&소피아뮤직위크 국제교류 음악회: 불가리아 프로쉬 현악사중주단 초청음악회 -푸르지오홀
2024	06월 13일	Conference 〈동서가교 - 유럽과 동아시아 문화 산업의 접점 Bridge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 Contact Points of the Cultural Industries of the Europe and the Far East〉
	06월 14일	2024 Sofia Music Weeks: 동서악회 초청 음악회 〈The〉- 불가리아 Chamber Hall of Zala Bulgaria
	06월 18일	2024 Serbia ArtLink Festival: 동서악회 초청 음악회 〈The〉 - 세르비아 Atrium-National Theatre-National Museum
	06월 28일	제14회 학술포럼 "한국의 전통 춤" - 예술가의 집(강사: 김희진)
		동서악회 제14회 정기연주회: 불멸의 춤을 만나다 - 국립국악원 우면당
	11월 19일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세미나: 한국과 불가리아 창작음악에 나타나는 전통성과 현대성
	11월 21일	동서악회 &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불가리아 국립예술원 전통음악 듀오 초청 연주회 - 한국 문화의 집(KOUS Korea Cultural House)

동서악회
인스타그램

동서악회
유트브

2024 동서악회·
Sofia Music Weeks 국제교류 세미나

한국과 불가리아 창작음악에 나타나는 전통성과 현대성